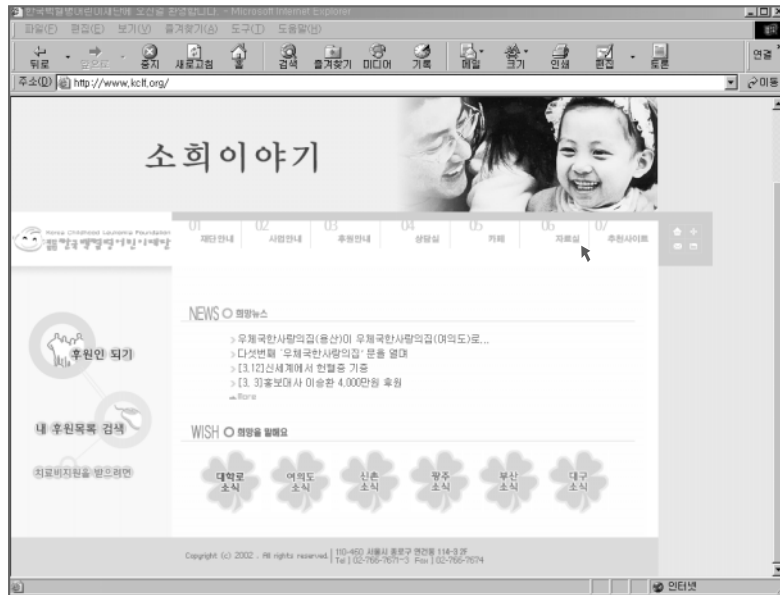




사랑이 있는 푸른 우리 마을



http://www.kclf.org

100% 완치와 건강한 복귀



송 상 현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이사장
서울대 법대교수

새 봄이 희망과 함께 시작되었습니다. 재단도 2003년 사업 계획을 수립하면서 많은 검토와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재단의 사명과 역할을 다시 확인하였습니다.

완치와 복귀! 그렇습니다. 재단이 이 땅의 백혈병을 비롯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에게 해야 할 최고의 목표입니다. 한 생명도 경제적 사정이나 그 어떤 이유로 소아암 치료를 받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이를 위해 의료보험제도 및 국가복지 예산이 확대되어 치료비 걱정 없이 충분한 소아암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현재 국가에서 저소득층 백혈병 어린이들에게만 의료비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루 빨리 모든 소아암 어린이들에게 확대 적용되어야 합니다. 또한 골수은행이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골수기증운동이 활발히 전개되어야 합니다. 국내에서 일치하는 골수가 없어 2,000만원 이상의 비용을 들여 일본이나 대만에서 골수 기증자를 찾는 일들이 없어야 합니다.

소아암은 70% 이상 높은 완치율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게는 2-3년 길게는 5년이상 장기간 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재단은 소아암의 치료뿐 아니라 이 어린이들이 치료를 끝내고 또래 집단으로 건강하고 당당한 모습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소아암 치료는 소아암 어린이들의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발달상의 어려움을 주어 소아암 어린이들은 완치 후에 정상적인 학교 생활과 사회 생활을 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어린이 병원학교’ 일반인들에게 생소한 이름입니다. 재단을 찾은 삼성SDS, 제일기획, 한양대학교 자원봉사자들의 시작을 기초로 1999년 7월 개교한 서울대학병원 어린이병원 병원학교를 비롯, 일부 병원에서 장기간 투병생활을 하는 어린이들을 위해 운영 하는 일종의 대안학교입니다. 재단은 소아암 어린이들의 정서적, 사회적 발달을 위해 입원어린이들을 위한 병동 프로그램과 전국에 운영하고 있는 우체국 혼사랑의집에서 학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힘든 치료를 받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교육 진행이 어렵지만 아동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노력으로 국가에서도 병원학교의 제도적 인정과 예산 지원을 하는 등 긍정적 발전을 검토하고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이 암을 극복하고 해맑은 모습으로 친구들과 뛰여 노는 모습은 한편의 기적 같은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바로 우리 주위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는 이들의 고통을 사랑으로 감싸 안아주는 후원자와 자원봉사자 여러분들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들입니다.

우리 사회에 새로운 변화와 발전이 놀라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에게도 항상 새로운 기쁨과 희망이 계속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버지의 詩

前生에 날 잃고 울부짖던 부모는,
전생에 내가 앞서 보내야 했던 자식은
지금 어디 있으랴

또 만날 날이 있으면만
그래도 이 애비 에미가 슬픈 건
너를 잊지못해
이렇게 추억하고 있기 때문이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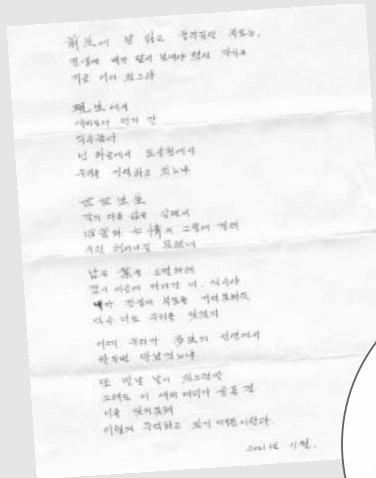
2001년 11월

現生에서
애비보다 먼저 간
익수눔아
넌 하늘에서 도솔천에서
우리를 기억하고 있느냐

世世生生
각기 다른 삶을 살면서
四苦와 七情의 그물에 걸려
우린 헤어나질 못했네

남은 業을 소멸하려
잠시 이승에 다녀간 너, 익수야
내가 전생의 부모를 기억못하듯
익수 너도 우리를 잊겠지

어찌 우리가 多生의 인연에서
한두번 만났겠느냐



익수네 가족사진



익수는 2000년 3월 급성림프구성백혈병으로 진단받고 서울대학병원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2001년 4월 하늘나라로 떠났습니다. 너무나 짧은 생을 마감하여 익수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지만, 익수의 해맑은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익수가족도 익수를 가슴 깊이 묻어두고 행복하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을 위한 교육용 소책자 발간

우리 재단은 정보 지원사업의 하나로 소아암 어린이와 가족들을 위한 소책자를 발간,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번 호에서는 지금까지 발간된 소책자들의 내용과 그 대상을 소개합니다.



1 소아백혈병의 치료

- 내용 : 소아백혈병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와 말초조혈모세포이식, 제대혈이식 등에 관한 설명이 담긴 책입니다.
- 대상 : 백혈병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보호자



2 자녀가 암에 걸렸을 때

- 내용 : 소아암을 진단받은 어린이의 부모님들이 겪게 되는 힘든 감정에 대한 대처와 도움구하기 등의 내용이 사례와 함께 설명되어 있습니다. 이 책자는 American Cancer Society의 "When Your Child Has Cancer"를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에서 번안한 것입니다.
- 대상 : 소아암으로 진단받은 어린이의 부모



3 둘리와 함께 쓰는 병원일기(소아암 어린이의 병원생활 익히기)

- 내용 : 소아암 어린이들이 직접 치료과정을 표현한 그림들을 색칠하면서 치료과정에 대해 이해하고, 치료에 긍정적으로 대처하도록 돕는 색칠공부책입니다. 소아암 어린이들은 물론 그 친구들과 형제들이 소아암 치료를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아암 어린이와 그 친구 및 형제



4 형제가 암에 걸렸을 때

- 내용 : 소아암 어린이의 건강한 형제들이 일상생활에서 겪을 수 있는 감정과 여러 궁금증에 대한 해결이 설명되어 있습니다. 부모님들은 건강한 자녀들의 어려움을 이해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대상 :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형제를 둔 글을 읽을 수 있는 어린이 및 청소년 형제와 소아암 어린이의 부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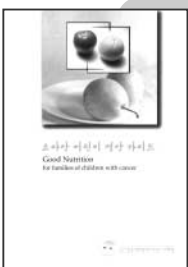
5 어떻게? 이렇게!

- 내용 : 감수성이 예민한 나이에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치료를 받는 동안의 느낌을 스스로 정리한 책입니다. 책 속에 소아암 완치자들의 당시 느낌이 적혀있어 치료당시의 느낌을 공유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대상 : 소아암 치료를 받고 있는 초등학교 고학년 어린이 및 청소년



6 소아암 학생 지도가이드

- 내용 : 소아암 어린이들을 학교에서 지도하는 교사들을 위한 책으로, 소아암에 대한 정보, 학생지도 요령과 각종 사례가 담겨있습니다.
- 대상 : 소아암 어린이를 지도하는 교사



7 소아암 어린이 영양가이드

- 내용 : 소아암 어린이들의 식사 및 영양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만든 기본적인 지침서입니다.
- 대상 : 소아암 어린이의 부모

모든 소책자는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재단 사무국
(02)766-7671

여의도 우체국 헌사랑의집
(02)704-8310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02)363-7671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062)234-5528

대구 우체국 헌사랑의집
(053)253-7671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051)244-7677

재단은

대한소아혈액종양학회와 함께

뇌종양, 림프종,

신경모세포종에 대한 소책자를

2003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희망모아 이룬 꿈

히마

“이 아이는 김남균입니다. 몇 년 전 치료 종결하고, 지금은 세브란스병원 인턴으로 있습니다.”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개소식에서 세브란스 유철주 박사의 소개로 그를 알게 되었다.

소아암을 이겨내고 있는 아이들에게는 든든한 형으로, 의료진에게는 자랑스런 완치자로 기억되고 있는 그를 만나기 위해 그가 인턴으로 있는 병원으로 찾아갔을 때, 그는 하루의 업무를 마치고 저녁식사를 하고 있었다.

“덕분에 오랜만에 제대로 된 식사를 하게 되었네요. 뭐든지 주문하세요. 멀리까지 오셨는데, 제가 맛있는 저녁으로 대접할게요.”

그는 한참 바쁜 시간에 찾아가게 되어 미안해하고 있던 나의 마음을 읽기라도 한 듯, 편안함과 따뜻함으로 반겨주었다.

1992년 겨울부터 2003년 봄사이
(발병당시부터 오늘까지)...

그가 이야기하는
그의 삶 속으로
잠시 들어가 본다.

꿈

1992 겨울



중학교 2학년, 병을 진단 받기까지의 시간이 저에게는 너무나 힘든 과정이었습니다.

원인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말로 표현하기 힘든 통증과 심한 빈혈로 고통스러워해야만 했던 저의 몸은 하루하루 지쳐갔습니다.

그래서인지 진단이 내려지고 본격적인 치료가 시작되었을 때에는 차라리 정복해야 할 무언가를 알게되었다는 생각에 그동안 저를 무척이나 괴롭혔던 불안감이 조금은 사라지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도 잠시, 치료가 계속되면서 머리가 빠지고 몸에 살이 붙기 시작하면서 저의 몸과 마음은 다시 힘들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꼭 낳을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않고 이를 악물고 치료에 임했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어디서 그런 믿음이 생겼는지 알 수 없지만 저는 제가 꼭 다 나아가서 다시 건강해 질 수 있다고 믿고 버텼습니다.

1993 여름



치료 과정을 돌아볼 때마다 제일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있습니다.

치료가 한참 진행될 때였습니다. 병원에서의 치료만으로도 제 몸은 충분히 견디기 힘들었는데, 통원치료로 인한 이동이라는 또 다른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자가용을 이용할 수도 없었던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야만 했습니다.

그때 저희의 어려움을 아시고 선뜻 자가용 한 대를 선물해 주신 분이 계십니다.

어머니 친구분이신 심재식 아주머니...

어린 나이였지만 그때의 고마운 마음은 아직도 그대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 차는 10년이 지난 지금도 제가 타고 다닙니다.

그 차를 탈 때마다 아주머니를 생각하게 되고, 한번쯤 찾아뵙고 그때의 감사했던 마음을 전해주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어 죄송한 마음입니다. 물론 의료진들이나 부모님, 친구들 모두에게도 감사 드리며 살고 있습니다.



1995 봄



힘든 과정을 여러분들의 도움으로 잘 이겨내고 드디어 치료를 마칠 수 있었습니다.

치료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와서 그동안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보답하는 일이 무엇일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의사가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나와 같은 고통을 겪고 있는 아이들에게 그동안 제가 받은 사랑, 아니 그 이상의 사랑과 인술을 베푸는 것으로 그분들께 보답하고 싶었습니다. 치료 기간동안 학교 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던 저의 성적은 형편없이 떨어져 있었지만,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흰 기운을 입고 아이들에게 인술을 베풀고 있는 제 모습을 상상하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2003 봄



그리고 수년이 지난 오늘, 전 그렇게 꿈꾸던 의사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임상에 첫걸음을 밟는 초보 의사로서 성실히 수련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소아암을 전공하여 어린 시절 제가 그랬던 것처럼 어린 나이에 암으로 고통받고 있는 아이들에게 조금이나마 힘이 되어줄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저는 그 누구보다도 지금 항암 치료를 받고 있는 아이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어떤 고민을 하고 있을지 알고 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 또래들이 갖는 고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삶이라는 인생의 커다란 명제 앞에서 고민해야 하는 우리 아이들에게 끝까지 희망을 버리지 말고 힘내라는 말을 전해 주고 싶습니다.

지금 그 누구보다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사는 동시에 많은 이들로부터 사랑과 관심을 받고 있는 우리아이들의 머리맡에 한줄기 따사로운 은총이 깃들기를 기원합니다.

열심히 수련 받고, 틈나는 대로 소아암가족을 위한 봉사도 하면서, 예쁜 여자친구를 살뜰히 챙기며 살아가고 있는 그의 모습에서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는 '행복'을 엿볼 수 있었다.



김 남 군

1978년 3월 3일 생

1992년 겨울 비호지킨스림프종 진단

1994년 봄 치료종결

현재 세브란스병원 인턴

♥ 비호지킨스 림프종 ♥

림프구나 조직구 계열 세포의 악성 증식의 결과입니다.

전체 소아종양의 10%를 차지하며

구토, 설사, 부종 등의 증상을

동반합니다.

심터에서는...



부산 우체국 헌사랑의집



2002년 12월...

아주 뜻깊은 일이 있었습니다. 부산 헌사랑의집 2주년을 맞이하여 완치 환아들에게 메달을 걸어주고 치료 중인 환아들에게는 꿈

과 용기를 심어주는 '희망미소 완치기원 대축제'가 개최되었습니다. 완치메달과 상장을 받으며 태어나서 처음 받아보는 상장이라며 환히 웃는 아이, 금메달을 받았으니 잘 때도 목에 걸고 잘 거라며 자랑하던 아이들의 기뻐하는 모습은 모두에게 훈훈함으로 전해졌습니다. 더불어 이날 행사에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후원자, 자원봉사자들에게도 감사패를 전달함으로써 감사의 마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2003년 1월...

부산지역에서 치료받는 3개병원 환아들이 경주로 캠프를 갔었습니다.

경주월드에서 놀이기구도 타고 저녁에는

모두 모여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맘껏 웃어보았습니다. 힘이 들어도 자신의 끼를 자랑하고 싶어하는 아이들의 모습과 가족이 함께 노래를 부르며 가족애를 자랑하는 모습들! 모두 병원에서 볼 수 없었던 생기발랄한 모습이었습니다. 잠깐 동안이었지



만 정말 오랜만에 아이들과 떨어져 있었기에 처음엔 불안해하던 부모님들도 시간이 지날수록 모처럼 주어진 개인시간에 너무도 감사해 하시며 알찬 시간을 보내셨습니다. 의료진과의 시간에서는 더없는 열의를 보이시는 부모님들의 모습을 통해서 캠프의 필요성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너무도 소중한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신 행정자치부와 (주)드림팩토리클럽, 캠프동안 아이들이 아프지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아이들과 함께 했던 도리도리가 있었기에 이런 행사가 가능하였던 것 같습니다. 모두모두 감사드립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박미주 >

광주 우체국 헌사랑의집

요즘 전남대병원에서 입원치료를 받는 아이들이 설레며 기다리는 시간이 있습니다. 바로 광주 헌사랑의집과 함께 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시간입니다.

병원내 놀이방에서 실시하는 미술교육, 종이접기, 노래배우기, 신문활용교육, 컴퓨터교육 시간은 치료에 지친 아이들에게 웃음꽃을 안겨주며 잠시나마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습니다. 호응도가 높아서 앞으로는 좀더 알찬 내용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하여 꾸준히 아이들과 함께하실 수 있으신 분은 조금도 주저하지 마시고 광주 헌사랑의집으로 연락주세요. (☎ 062-234-5528)

< 담당 사회복지사 정 옥 >

신촌 우체국 헌사랑의집



포하나의 헌사랑의집, 그 시작을 알리던 날...

“우와~ 우리 집보다 훨씬 좋아요. 여기서 살았으면 좋겠어요”
다섯 번째로 문을 연 신촌 헌사랑의집을 찾아주신 많은 분들께서 반가움 반, 부러움 반의 마음으로 남기신 말씀입니다. 신촌 헌사랑의집은 지난 1월 21일 개소식을 통하여 그 시작을 알리고 문을 활짝 열었습니다.

개소식에는 신촌 헌사랑의집이 탄생되기까지 물심양면 애써주신 많은 분들이 함께 하였습니다. 기금을 후원해주신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분들, 리모델링 비용 마련을 위해 힘써주신 “SBS 스타도네이션 꿈★은 이루어진다” 제작진과 연예인분들, 세심한 배려를 아끼지 않으셨던 세브란스병원 관계자분들, 누구보다 말없이 지지해주셨던 부모모임 여러분과 앞으로 신촌 헌사랑의집에 주인이 될 여러 소아암가족들은 모두 같은 마음으로 신촌 헌사랑의집 개소를 축하하였습니다.

많은 분들께 다시한번 감사드리며, 소아암가족 누구나 내집처럼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문을 활짝 열어 놓고 기다리겠습니다.

〈 담당 사회복지사 임희은 〉

후원자	품명	수량	후원자	품명	수량
정보통신부장관	에어컨	1대	강화온돌마루	내부바닥재	41평
우정사업본부장	에어컨	1대	팀버테크	외부데크	10평
서울체신청장	드럼세탁기	1대	대동벽지	항균벽지	68평
세브란스병원장	냉장고	1대	(주)귀뚜라미 보일러	보일러	2대
핑크하트	이불	10세트	계림요업	세면대 변기 수전	3대 2대 4조
롯데월드	벽시계 탁상시계	5개 5개	디펜스코리아	방범필름	1층창(7개소)
비건의료기	척추치료기	1대	KOCOM	비디오폰	1대
당서초등학교장	전자레인지 압력밥솥 코렐식기세트	1대 1대 10인조	LG에다지	방문	8개
이레전자	PDP TV(42") LCD 모니터(17")	1대 5대	故 김승휘 모	김치	20kg

물품을 후원해주신데 감사드립니다

군에서 온 편지



Always on my Mind
Wipe yourself to Shine up and
for those you care and love

필승! 안녕하십니까.
해병대 1사단 포병연대에서 군복무 중인 천강재라고 합니다. 오랫동안 '한빛회원'이었는데 편지를 써보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저는 현재 포항에서 2002년 2월 6일부터 열심히 군복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던 중 지난 5월 중순에, 중대장님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제가 사회에서 관심을 가졌던 일들을 중대원들에게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 덕분인지 얼마 전 있었던 부대 헌혈 후, 적지만 30명이 저에게 헌혈증을 맡겨주었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으로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작은 봉급의 일부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으로 후원금을 보냅니다. 돈은 불편함으로 바꿀 수 없어 그냥 넣었습니다.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많이 춥네요. 그에 맞춰 감기 환자도 늘어날 것 같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다음에 기회가 있으면 다시 인사 드리겠습니다.

♥ 추신. 아메리칸 인디언들은 어떤 말을 만 번 이상 되풀이하면 그 일은 반드시 이뤄진다고 믿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중얼거리는 말은 무엇인가요?
2002년 가을
해병 일병 천강재 드림.

Keep that smile on you

The flower has been changing
it's clothes according to the season



LOVELY DAY
You fill up my love you

이제는 옆에 누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따뜻해지는 추운 우리들의 겨울이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제 1경비단 기동타격대에 근무 중인 이병 박정희라고 합니다. 작년 이맘때 재단의 후원자로 가입하고, 사회에 있을 때는 시험 스케줄이 바빠기에 또 군에서는 막내라는 핑계로 한번도 작은 성의 표시를 하지 못했습니다. 이곳 군에 와서 느낀 것은 사회에서 작은 사랑을 실천하는 것과 군에서 남을 돕고, 후임을 감싸 안을 수 있는 것이 비슷한 것이 아닐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전 이등병이지만, 그래도 할 수 있다고, 힘든 훈련도 할 수 있고 저에게 주어진 임무를 잘 수행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수많은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도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다고 믿고,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면 반드시 병마도 이겨낼 수 있을 것입니다. 수많은 군인들이 열심히 나라를 지키고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듯이 백혈병·소아암 어린이들도 지금의 고통은 하나의 작은 시련이라 여기고, 언제나 용기를 잃지 않고 병마와 당당히 맞서 열심히 치료한다면 자신이 바라는 꿈을 반드시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비록 몸은 군에 있지만, 얼마 안 되는 돈이라도 담뱃값을 조금씩 모아 조금만 성의표시를 하고 싶습니다. 군인이라 은행에 갈 수도 없어 이렇게 우편으로 보내드립니다. 모두들 건강하시고, 언제나 꿈, 용기, 희망, 패기는 가슴속에 채워두십시오.
"충~성!"

2002년 겨울 기동 타격대 이병 박정희

♥ 한뜻후원자 소식

감 사 합 니 다.

신규회원 소개(2002. 12. 1. ~ 2003. 2. 28.)

강훈중 양지은 원종일 유순재

♥ 수호투사 소식

새로 등록하신 수호투사님들입니다. (2002. 12. 1. ~ 2003. 2. 28. / 등록번호순입니다.)

임현희 이은혜 송건호 소현옥 정보라 조병남 김덕순 원지영 정혜영 김기영 김성수 한상선 천승환
 정진아 장문순 이상훈 이병훈 윤영숙 신동진 설매숙 김혜영 김창인 김정신 김용우 김영태 김동식
 김기남 김경미 강호상 강석갑 최홍림 조광필 이형환 이경선 송정필 손지은 박미화 김해자 김태환
 곽배근 김현철 윤영난 에이스상사 김은경 김진희 김창수 김현옥 손정선 이은정 이재훈 임동균
 최승권 최 웅 정 준 이명초 신 용 정현숙 임승민 이현미 윤수정 윤경식
 양영환 서민형 박혜진 민경남 김현경 권정은 김진호 김윤진 김미숙 곽태윤
 김도희 김윤국 김형수 신성옥 오윤삼 이명주 이혜진 장상배 정영순
 채광련 김현수 권오균 서은정 홍익표 봉현철 이재석 손현주 강정현
 김창익 순화정 이정신 전성권 이미화 서미선 전춘아



1. 2003년 목표! 2003명의 수호투사 임명!

여러분의 능력을 보여주세요! 2003년 2월 28일까지 691명의 수호투사가 임명되었습니다. 1,312명의 주인공은 바로 당신입니다.

2. 수호투사님들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일상생활의 따뜻한 이야기들을 담아주시면, 소식지에 실어드리겠습니다.

3. 수호투사님들의 자랑스러운 이름은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www.kclf.org/후원안내/명예의전당)

♥ 후원계좌 안내

예금구좌 / 310-03-002396(조흥은행)

6981440(은행지로)

012989-01-003327(우체국)

090-000260-04-015(기업은행)

001-01-2353-890(국민은행)

029-01-176943(농협)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사랑이 모이는 곳

홈페이지 새단장

재단의 홈페이지가 새롭게 바뀌었습니다. www.kclf.org로 접속하시면 '소희이야기'를 시작으로 재단의 사업들, 후원자·소아암 가족들의 소식을 보실 수 있습니다. 기존 주소인 www.childcancer.or.kr로도 접속이 가능합니다.

특히 상담실은 서울대병원 소아과 안호섭 교수님께서 직접 의료상담을 하고 계십니다. 의료상담의 자료는 추후 자료집으로 발간할 예정입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방문 부탁드립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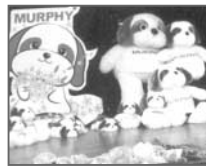
'차카게살자' 3탄!!

지난 1월 18일 세종대학교 대양홀은 열광의 도가니였습니다. 이승환의 '차카게살자' 세 번째 콘서트를 보기 위해 전국 각지에서 몰려든 열성 팬들은 장장 5시간 동안 뛰고, 구르고, 목이 터져라 소리치며 함께 했습니다. 콘서트의 수익금이 전액 소아암 어린이들을 위해 사용될 것을 공지하고 시작한 콘서트인지라, 이 아름다운 콘서트에 동참하기 위해 팬들은 쌈짓돈을 꺼냈습니다. 부대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밴드, 무대지휘, 관객안내 등 모든 것을 자원

봉사로 채웠고, 이렇게 모여진 금액은 4,000만원!

후원금 전달을 위한 떠들썩한 홍보행사, 보도자료 배포, 사진촬영과 같은 형식을 갖추지 않고,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보내왔습니다. (주)드림팩토리클럽 식구들, 그리고 이승환님! 감사 드립니다.

머피와 함께



2002년 연말은 오로라월드(주)에서 기증해주신 인형들 덕분에 각 병원의 완치잔치, 이승

환 콘서트의 잔치분위기가 더욱 고조되었습니다. 기증해주신 1억 상당의 인형들은 앞으로 행사가 있을 때마다 소아암 어린이들의 선물로 지원될 예정입니다.

사랑의 헌혈증 기증

국무조정실은 30일의 창설 30주년 행사의 하나로 지난 1월 27일 전 직원이 백혈병 어린이 돕기를 위한 헌혈 운동을 하였습니다.

다. 정부청사 10층에 마련된 헌혈장에선 김진표 국무조정실장, 이형규 총괄조정관, 하동만 경제조정관, 최경수 사회문화조정관 등을 비롯한 국조실 전직원 150여명이 헌혈한 뒤 헌혈증서를 전달해주셨습니다. 특히 여직원 모임인 '하나임희'는 지난 24일 중앙청사 인근 한 맥주집에서 가진 '일일차집' 행사 수익금 전액을 헌혈증서와 함께 재단에 전달해주셨습니다.

눈발이 날리는 추운 날씨였지만 헌혈증을 받으러 가는 두 명의 소아암 어린이와 재단 식구들은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 이런 행사를 준비하고 있어요! ✂

4월 희망나무심기

5월 컴퓨터소풍
연날리기

자세한 내용은 행사가 확정되는 대로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특별후원 환아 소개 (2002. 12. 1. ~ 2003. 2. 28.)

12월

개인후원자(장효상) 4,500,000
백동훈(림프종/동아대학병원/마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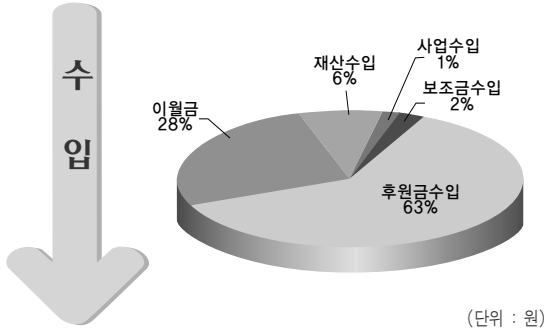
재단후원 5,000,000
이우라(뇌종양/서울대학병원/울산)

2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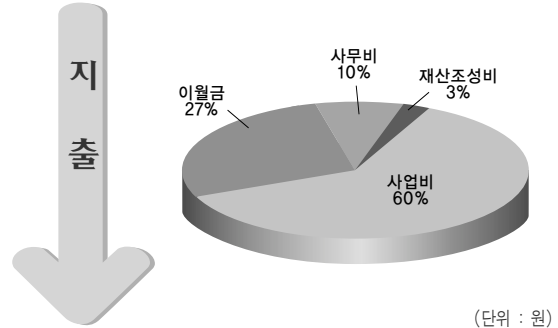
국무조정실 여직원회 '하나임희' 1,000,000
박성우(뇌종양/서울대학병원/충북)

이래기금 10호 1,000,000
이동현(뇌종양/서울아산병원/경기)

2002년 사업보고



재산수입	124,029,236	이월금	599,749,748
사업수입	23,704,500	잡수입	2,956,435
보조금수입	50,538,540	예수금	1,249,930
후원금수입	1,362,335,863	합계	2,164,564,252



사무비	225,223,610	기타	896,788
재산조성비	57,527,700		
사업비	1,294,119,853		
이월금	586,796,301	합계	2,164,564,252

구분	사업명				비율(%)	사업명				비율(%)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사업명	사업실적	사업비(원)	비율(%)	
경제적 지원	이식비 지원	35(명)	223,944,210	17.30	정서적 지원	입원환아집단활동	-	4,566,570	0.35	2.16
	입원진료비 지원	68(명)	233,600,500	18.05		캠프	-	6,483,240	0.50	
	외래진료비 지원	128(명)	87,000,000	6.72		가족행사	-	16,905,970	1.31	
	현혈증 지원	30,010(매)	245,984,200	19.01		기획사업	직원교육	-	826,370	
	가발 지원	47(명)	32,900,000	2.54	홍보사업		-	21,980,180	1.70	
	부모회 지원	-	32,083,000	2.48	이식비후원회원관리		4,400(명)	3,850,900	0.30	
	지정후원	-	132,791,400	10.26	운영비후원회원관리		1,100(명)	3,000,879	0.23	
	정보 지원	추진경비	-	991,480	0.08	시설비후원회원관리	80(명)	212,190	0.02	1.20
홈페이지운영		-	8,117,600	0.63	유관단체 관리	-	1,328,310	0.10		
소식지 발간		4회 /34,700(부)	4,086,670	0.32	자원봉사 관리	-	1,176,970	0.09		
소책자 발간		2회 /4,000(부)	1,963,610	0.15	후원개발비	-	7,840,260	0.61		
상담		138(사례)	1,305,530	0.10	시설운영사업	시설운영사업	쉼터(6개소)	179,789,814	13.89	
					연구지원사업	연구지원	-	41,390,000	3.20	3.20
					합계		1,294,119,853	100	100	

* 경제적 지원 중 가발지원과 현혈증지원 현혈은 현물을 현금으로 환산한 것임.

천사백운동 지원환아

천사백후원금을 지원받은 어린이들을 소개합니다.



김준영(남/만 5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여의도성모병원
2003년 1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손숙현(여/만 4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3년 1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김지수(여/만 5세)
신경모세포종 / 서울아산병원
2003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조민아(여/만 3세)
급성림프구성백혈병 / 전남대학병원
2003년 3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행



곽여진(여/만 3세)
급성골수성백혈병 / 부산대학병원
2003년 3월 제대혈조혈모세포이식 시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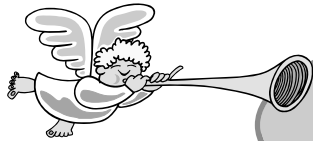
이익진(여/만 13세)
급성골수성백혈병 / 여의도성모병원
2003년 2월 형제간 조혈모세포이식 시행



조민서(여/만 3세)
신경모세포종 / 삼성서울병원
2003년 3월 자가조혈모세포이식 시행



박기성(남/만 8세)
재생불량성빈혈 / 세브란스병원
2003년 4월 비혈연간 조혈모세포이식 시행예정



천사백운동 참여현황 (2003. 2. 28. 현재)

참여후원자 : 3,155명 구좌수 : 15,756구좌

천사같은 이웃을 소개합니다. (2002. 12. 1. ~ 2003. 2. 28. 까지 처음으로 후원금을 입금하신 분들)

예금주 : (재)한국백혈병어린이재단

경남은행(514-07-0175564)
김수경

부산은행(070-01-021379-8)
나정심 윤미영

제일은행(225-20-385050)
권오경

광주은행(200-107-315315)

서울은행(16508-2945601)
우경난

조흥은행(367-01-192434)
김경실 이기수 정윤희 정희경

국민은행(031-01-0414-356)
김종하 양현수 엄재연 이대일 최석진 최인수

신한은행(394-01-000694)
이명현

하나은행(144-121835-00105)
김현진 박정현 홍성희

기업은행(090-000260-04-022)
조세진 조유진

외환은행(141-22-00799-6)
금미경

한미은행(100-59711-251)
김동국 김언정 방정례 이선애 전상훈

농협(029-01-170940)
김영미 라보라 박성현 박승필 안선화 오정미
오춘규 이우행 이완순 이해숙 정경근

우리은행(112-04-112571)
곽동영 이수빈 임현정 황남선

지 로(6981440)
김수경 김정미 김희정/최형승 문은주 박영숙
변세진 서문주 송은재 신진이 안일화 윤영숙
이영지 이윤희 이은정 이태형 이혜린 임상현
정미영 정현규 최봉희 최현정 홍새봄

대구은행(004-05-179828-001)
조정희 최은석

우체국(012989-01-003313)





사랑의 모음터

◆ 사랑의 헌혈증서 (2002. 12. 1. ~ 2003. 2. 28.)

국무조정실(93)	권진욱(7)	김종선(4)	대원고등학교(287)	도리도리(22)
민영숙(2)	박상욱(4)	박재홍(363)	백현숙(5)	버룩시장(868)
우정사업본부(674)	이근희(10)	이미선 조부(395)	이욱(6)	(주)그린시티(3)
채성석(6)	한상덕(15)	현하욱(1)		

◆ 특별 후원금

2002년 12월 경북체신청장 3,000,000 구의교회 100,000 김영미 1,000,000 김영일 2,000,000
 부산은행 100,000 신구초 100,000 알리안츠생명 12,000,000 우정사업본부 25,000,000
 이상원 1,000,000 이연심 100,000 이춘희 240,000
 전남대병원 1,000,000 정보통신부장관 이상철 2,000,000 한국HP 등산반 2,139,256
 한강로타리클럽 400,000 황현미 1,000,000

2003년 1월 구의교회 100,000 국무조정실 하나임회 5,422,600 봉원교회 100,000 부산은행 100,000
 부산체신청장 500,000 서재홍 100,000 왕경희 1,500,000 우체국예금보험 200,000
 한강로타리클럽 430,000 한상학 1,000,000 SBS 꿈★은이루어진다 22,835,516

2월 구의교회 100,000 부산은행 100,000 우정사업본부 73,500,000 익명 200,000
 철도회원협력회 348,308 하나은행 압구정중앙지점 300,000 한강로타리클럽 500,000

◆ 후원물품 (2002. 12. 1. ~ 2003. 2. 28.)

故김승휘母 김치 권진욱 문화상품권(3) 김경미父母 김치 김성겸父 쌀 김성재 커피
 김양선 포장지(250), 수첩(8), 컵(8), 카드, 색연필(2set) 김영길母 굴 김정민父母 쌀
 김현지 수저통(24) 김화정母 김 노현용母 굴 맛을찾는여행 화장지 문선자 치약(50)
 부산체신청 도서상품권(200) 서울대어린이병원학교 생활용품 알리안츠생명 트리
 전갑주 책(10) 최영석 치약, 비누

◆ 물품 후원 안내

우리 재단은 비품구입비를 절약하기 위해 사무국과 재단이 운영하는 쉼터에 필요한 물품을 기증 또는 무상 기탁을 받고 있습니다. 보내주시는 기증품 하나 하나는 큰 도움이 됩니다.

2003년 봄호는 BORYUNG (주)보령제약 에서 제작지원해주셨습니다.